1. 「상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상호에 관한 「상법」의 규정은 소상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사에 관하여는 상관습법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③ 공법인의 사업 중 상행위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법령의 다른 규정보다 우선하여 「상법」을 적용한다.
④ 일방적 상행위인 경우에도 당사자 전원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한다.

2. 「상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은행법과 보험업법은 「상법」의 법원이 아니다.
② 사실인 상관습은 「상법」의 법원이다.
③ 주식회사의 정관은 「상법」의 법원이 아니다.
④ 「상법」의 법원인 상사제정법에는 상사관계조약도 포함된다.

3. 「상법」상 상인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회사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② 미성년자도 상인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③ 자연인인 상인이 영업 중 피한정후견이나 피성년후견의 선고를 받으면 상인자격을 상실한다.
④ 자연인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개시함으로써 그의 영업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가능한 때에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4. 「상법」상 지배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배인의 대리권은 정형성과 포괄성을 가지므로, 영업주는 지배인의 대리권을 제한할 수 없다.
② 지배인은 자연인에 한한다.
③ 영업주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서도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지배인은 다른 지배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없다.

5. 「상법」상 상업사용인의 겸직금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甲편의점 물건판매를 담당하는 시간제 피고용인이 같은 시에 있는 乙편의점으로 옮겨 일하려면 甲점주의 허락이 필요하다.
② 온라인 교육 전문 회사의 상업사용인이 원격교육대학에 다니려면 회사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③ 상업사용인이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를 하는 경우라도 영업주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④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다른 주식회사의 주주가 될 수 없다.

6. 다음 중 설문의 내용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은 두 가지 영업을 하고 있었다. 하나는 국내산 소를 수매하여 도축한 다음 이를 전국에 유통시키는 영업이고, 다른 하나는 제3의 업체로부터 국내산 소고기를 공급받아 유통시키는 영업이었다. '甲'은 이 가운데 중부공장에서 이루어지던 전자의 영업을 '乙'에게 양도하면서 '甲'이 2년간 원래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하였다. 2년 경과 후, '乙'은 '甲'이 계속하여 운영하고 있는 후자의 영업이 그 성질상 양도한 영업과 동일한 것이므로 '甲'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① '乙'이 양수한 중부공장은 가공한 육류를 전국적으로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업지역은 중부공장이 소재한 군과 인접한 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② '甲'이 영위하던 수 개의 영업가운데 일부만 양도의 대상으로 포함하였고, '甲'이 양도 이후 2년간 원래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고 약정한 것은, '甲'이 중부공장 영업 이외의 영업을 계속한다는 것을 전제한 것으로, 당사자들 사이에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배제한다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③ '甲'이 양도한 영업은 직접 국내산 소를 수매하여 도축한 다음 이를 전국에 유통시키는 것이고, '甲'이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영업은 제3자의 업체로부터 국내산 소고기를 공급받아 유통시키는 것이어서 양자를 '동일한 영업'으로 볼 수 없다.
④ '甲'의 영업과 '乙'이 양수한 영업은 모두 국내산 소고기의 유통업이라는 점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두 영업 사이에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종영업'으로 볼 수 있다.

7. 「상법」상 상업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의 등기관은 등기신청요건에 관한 형식적 심사권은 물론 그 신청사항의 진위 여부까지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을 가진다.
② 상인이 등기된 상호를 '甲'과 '乙'에게 순차적으로 이중양도한 경우에 선의의 '乙'이 먼저 상호양도를 등기한 경우라 하더라도 '甲'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상업등기는 법원이 그 내용을 신문이나 관보에 공고함으로써 그 등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자본금액 2천만원으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위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하여야 한다.

8. 「상법」상 상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② 당연상인은 기본적 상행위를 영업으로 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③ 의사는 「상법」 제4조 내지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당연상인은 '자기명의'뿐만 아니라 '자기계산'으로 상행위를 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9. 「상법」상 상인의 상호선정 관련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상인은 자신의 성명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
② 개인상인은 동일한 영업에 다양한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상호는 명칭이므로 문자로 표시되고 또 발음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10. 「상법」상 영업양도시 당사자간의 의무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양도인에게는 영업이전의무가 발생하여, 부동산 등기·동산의 인도·채권의 대항요건 등 재산의 종류별로 필요한 이전행위를 하여야 한다.
② 영업양도에는 고용승계가 포함되므로,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등 임금채무도 양수인에게 일괄적으로 이전된다.
③ 당사자간 다른 특약이 없으면 양도인은 2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④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3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11. 「상법」상 미성년자의 영업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때에는 그 사원자격으로 인한 행위에는 능력자로 추정한다.
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대리권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영업을 하는 때, 미성년자는 상인자격을 상실한다.

① 가 ② 나 ③ 가, 나 ④ 가, 나, 다

12. 「상법」 제23조 제1항의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는 상인의 명성이나 신용, 영업의 종류·규모·방법, 상호의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특별시·광역시 등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④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일반인으로부터 기업 명성으로 견고한 신뢰를 획득한 상호가 아니라면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13. 상호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양수인이 계속하여 사용하는 명칭이 상호 자체가 아니라 옥호 또는 영업표지인 때에는, 그것이 비록 영업주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었다고 할지라도 영업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없다.
② 채권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그 책임을 면하려는 영업양수인에게 있다.
③ 채권자가 영업양도 무렵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이 발생하고, 이후 채권자가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④ 「상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자금과 관련한 피보증인의 지위까지 승계한 경우를 포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보증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양수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14. 「상법」상 의제상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무사는 「상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의제상인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자기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의제상인이라 한다.
③ 의제상인은 기본적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여야 한다.
④ 의제상인은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이다.

15. 명의대여자 甲을 영업주로 오인한 乙과 명의차용자 丙에 대한 법률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에 판례에 의함)

가. 甲이 지방자치단체라도 명의대여자 연대책임이 발생한다.
나. 甲의 허락 범위 내 영업이 아니더라도 丙의 거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다. 甲이 건설업 면허만을 丙에게 대여했다면 하수급자 乙에게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 甲이 丙을 출장소장으로 임명하고 甲의 지휘하에 운송업을 해 왔다면 丙과 乙의 거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6. 「상법」상 상업사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회사의 영업부장이 거래선의 선정, 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상무, 사장 등 상사의 결재를 받아 그 업무를 시행한 경우에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라고 볼 수 없다.
②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은 영업주의 대리권 수여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그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다.
③ 주식회사의 경리부장은 회사의 자금차용에 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으로 볼 수 없다.
④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을 등기하면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17. 「상법」 제25조 상호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호의 양도는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 상호만을 양도할 수 없다.
③ 상호는 영업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④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8. 「상법」상 상업장부에 관한 규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소상인의 경우라 할지라도 상업장부를 작성할 「상법」상의 의무가 있다.
② 손익계산서에 기재할 고정자산은 취득가액 또는 제작가액으로부터 상당한 감가액을 공제한 가액에 의하되, 예측하지 못한 감손이 생긴 때에도 상당한 감액을 하여야 한다.
③ 상인은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그 작성일로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소송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소송당사자에게 상업장부 또는 그 일부분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9. 「상법」상 지배인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지배인으로 선임된 자는 그 선임등기를 하지 않아도 지배인으로서의 권한을 갖는다.
나. 지배인이 영업주의 허락없이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한 경우,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다.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 제3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영업주가 부담한다.

① 가　② 가, 나　③ 나, 다　④ 가, 나, 다

20. 「상법」상 소상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회사는 소상인이 될 수 없다.
② 소상인에게는 영업양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③ 당연상인은 자본금이 1천만원 미만이어도 소상인이 될 수 없다.
④ 소상인에게는 상업등기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1. 「상법」상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소상인에게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선임과 종임은 등기하여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영업주만이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은 영업주로부터 위임받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사항에 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22. 「상법」상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를 경영하는 영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점포에서 일하는 자는 「상법」 제16조의 상업사용인이 아니다.
② 백화점 지점의 외무사원은 거래 관념상 「상법」 제16조의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의 사용인'으로 볼 수 없다.
③ 「상법」상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의 사용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물건판매에 관하여 재판상 모든 행위를 대리할 수 있다.
④ 「상법」상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회사 본점의 직원은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23. 회사의 상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회사는 여러 개의 영업을 하더라도 상호는 하나만 사용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③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개인상인이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라면 해당 영업의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24. 「상법」 제37조에서 규정한 상업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이라 함은 등기 전에는 등기사항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등기 후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3자가 비록 선의라고 하더라도 이를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② 일반적으로 등기 전에는 적극적 공시원칙, 등기 후에는 소극적 공시원칙이라고 하며, 「상법」은 제37조에서 적극적 공시원칙만을 규정하고 있다.

③ '甲'과 '乙'을 공동지배인으로 선임하였으나 이를 등기하지 않고 있던 중, '甲'이 영업주를 단독으로 대리하여 영업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한 때에는 영업주가 선의의 '丙'에 대하여 그 부동산의 매매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

④ 제3자의 '선의'라 함은 등기될 사실관계, 다시 말해서 등기사항의 존재를 알지 못함을 말하는 것이며, 등기가 되어 있는지를 알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25. 다음 보기의 ( )안에 들어갈 사항과 관계가 <u>없는</u> 기간으로만 묶은 것은?

가. 상인은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를 ( )간 보전하여야 한다.
나.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 )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다.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영업주가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 )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 )을 경과하면 영업주의 개입권은 소멸한다.
라.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 ( )내에 그 상호를 등기한 자가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마.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당사자간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 )간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① 5년, 2년, 2주간
② 20년, 6개월, 4주간
③ 20년, 10년, 4주간
④ 2년, 1년, 6개월

26. 「상법」상 공동지배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동지배인 제도는 지배권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대리권의 행사방법을 제한하는 것이다.

② 영업주가 수인의 지배인을 선임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수인의 지배인은 각자 독립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③ 공동지배인은 공동으로만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이 공동지배인 전원에게 의사표시를 하여야만 영업주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④ 영업주가 수인의 지배인을 공동지배인으로 하려면 수인의 지배인이 공동으로만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주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27. 「상법」 제17조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업사용인이 영업주 허락없이 자기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한 경우에 해당 거래는 무효다.

② 상업사용인이 영업주 허락없이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한 경우에 영업주는 사용인에게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상업사용인이 영업주 허락없이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자기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는 이를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상업사용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영업주는 사용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8.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 사용자에 대한 「상법」상의 효과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사용자가 그 상호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부정한 상호사용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①의 경우에 상호폐지를 청구한 것은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선사용자가 상호를 등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후사용자가 상호를 먼저 등기했다면 선사용자의 등기 말소 청구의 소는 제한된다.

④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동일한 상호에 한정된다.

29. 영업양수인의 제3자에 대한 변제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양도회사의 대표이사 '甲'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회사 명의의 어음을 발행하였다 할지라도 어음채무자가 회사인 이상,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양수인은 어음금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② 제3자가 영업양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채무인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몰랐다면 채권자의 선의는 인정된다.

③ 외관법리에 기초하여 인정되는 책임이므로, 양수인이 상호를 속용하거나 채무인수의 광고를 한 경우는 물론 양도인의 채권자가 양수인이 채무인수를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이를 '채무인수의 광고'로 볼 수 있어 변제책임을 부담한다.

④ 속용하는 상호의 동일성과 관련하여서는 영업양도 전후의 상호가 주요 부분에 있어서 동일하면 충분하다고 한다.

30.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타인에게 자기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게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영업에 사용할 것을 묵시적으로 허락한 경우에도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발생한다.
③ 특별법으로 금지하는 행정관청 면허를 대여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선의 또는 악의를 불문하고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④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대여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하고 거래한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31. 「상법」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간에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면제하거나,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으로만 지역을 한정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 약정은 효력이 있다.
②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여기서 말하는 '동종영업'은 반드시 동일한 영업에 한하지 않고, 영업의 내용, 규모, 방식,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도된 영업과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을 의미한다.
③ 양도인의 경업이 동일 지역 또는 인접 지역에서 이루어졌는지는 양도된 물적 설비가 있던 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인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졌던 지역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영업양도인 '甲'이 경업을 하다가 제3자 '丙'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 그 영업이 실체가 남아있는 이상 경업금지의무 위반상태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므로, 양수인 '乙'은 제3자 '丙'에 대하여도 경업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32. 「상법」상 표현지배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점장, 본부장 등은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표현적 명칭에 해당하나, 지점차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지점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표현지배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한다.
③ 지점장, 본부장 등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표현적 명칭을 사용한 자는 재판 외의 행위에 있어서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표현지배인의 성립요건으로 표현지배인이 근무하는 본점이나 지점이 영업소로서의 실질을 구비해야 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33. 상호의 등기 및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개인상인이 여러 개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 각기 다른 상호를 등기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회사가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할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개인상인이 등기한 상호를 변경한 때에는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34. 「상법」상 영업양도인의 채권자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한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③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영업양수인과 영업양도인은 부진정연대책임의 관계에 놓이게 된다.
④ 선의의 영업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수인의 제3자에 대한 변제책임은 영업양도 또는 채무인수의 광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35. 상업등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등기의무자가 등기할 사항을 등기한 경우에는,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② 영업주가 '甲'을 지배인으로 선임하였으나, '乙'을 지배인으로 선임등기함에 있어 영업주에게 경과실이 있었던 경우라면, 영업주는 '乙'과 거래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乙'이 지배인이 아니라는 사실로 대항할 수 있다.
③ 개인상인의 상호가 일단 등기된 후에 상호의 변경이 이루어졌다면, 등기의무자는 지체없이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 절대적 등기사항이 된다.
④ 등기신청권자가 스스로 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의 책임있는 사유로 등기가 이루어지는 데에 관여하였거나 부실등기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등기신청권자의 고의·과실로 부실등기를 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등기신청권자에 대하여 「상법」 제39조에 의한 부실등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36.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사용의 허락이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타인 간의 거래에서 세무회계상의 필요로 납세번호증만을 이용케 한 경우
나. 타인의 상호사용 사실이 없으나 상점·전화·창고 등을 여러 차례 사용케 한 경우
다. 입찰자격이 없는 다른 회사에게 회사 명의를 빌려 준 경우
라. 같은 업종을 하는 자에게 자기 사무실을 이용케 하면서 자기 상호사용을 묵인한 경우

① 가, 나　② 나, 다　③ 다, 라　④ 가, 라

37. 영업양도의 개념과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법」상 영업양도는 영업양도계약이라는 채권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② 「상법」 제41조 소정의 영업의 양도란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의 동일성이 유지된 일괄이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도인의 영업과 관련된 채권·채무는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③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한 경우 영업의 양도는 아니지만, 출자의 목적이 된 영업의 개념이 동일하고 법률행위에 의한 영업의 이전이란 점에서 영업의 양도와 유사하며,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형상 양도와 출자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상법」 제42조를 유추적용하여 신설된 회사는 출자한 자의 영업상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

④ 종업원과 같은 인적 조직은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동일성을 유지하며 승계된다고 봄으로, 원칙적으로 영업양도 전의 근무조건이 그대로 유지되고, 영업양도 이전에 성립된 임금채무도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38. 「상법」상 "상업장부"로만 묶인 것은?

① 회계장부와 대차대조표　② 주주명부와 중개인의 일기장
③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④ 영업보고서와 회계장부

39. 「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영업양도는 그 등기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회사의 합병과 유사하다.

② 영업양도과정에서 양수인과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영업양도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기재사항도 법정하고 있다.

③ 농업협동조합이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상법」상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④ 상호의 계속 사용으로 인하여 양수인이 부담하는 양도인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책임은 영업양수 후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40. '甲'은 '乙'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乙'의 상호를 사용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 '乙'은 '丙'에 대하여 영업의 양도 전에 발생한 영업상의 채무를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상법」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원칙적으로 '甲'도 '乙'의 '丙'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甲'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乙'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였다면, '甲'은 '丙'에 대하여 변제책임이 없다.

③ '甲'과 '乙'이 지체없이 '丙'에 대하여 '乙'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뜻을 통지한 경우라면, '甲'은 '丙'에 대하여 변제책임이 없다.

④ '甲'은 '乙'이 영업활동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丁'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변제책임까지는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